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교환경의 현황과 대응

이 병 인*

1. 들어가는 말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구환경의 현황과 특성
3. 코로나 19 이후 지구환경 현황과 대응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불교 환경의 현황과 특성
5.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국불교 환경의 대응과 변화
6. 맺는 말

■ 한글요약

이 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교환경의 현황과 대응에 관한 종합적 고찰이다.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많은 사람들을 죽고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경제와 삶을 정지시키는 비극으로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봉쇄 조치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을 증가시키며 빈곤과 배고픔을 증가시켰다. 이렇게 많은 사람 및 번영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발전에 피해를 주고 있지만, 지구 관련 지속가능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2020년의 연간 CO₂ 배출량은 작년보다 4-7퍼센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와 물은 깨끗해졌으며 많은 곳에서 자연의 복원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상이한 결과는 발전과 번영을 달성하는 현재의 방법이 지구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 부산대학교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교수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도 지구전체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특성화하는 방안으로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국불교환경의 현황과 특성으로서 불교의 수승한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양식 등 종교유산과 함께 사찰림 등 생태환경이 우수한 자연유산과 훌륭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복합유산(Complex Heritage)적 특성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다.

이제 한국불교는 불교의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양식, 그리고, 역대 조사들의 친환경적 전통을 오늘에 되살리는 청정성 회복운동(Clean Restore Movement)이 시대적으로 일어나야 하고, 더불어 근원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인과관계 및 공생관계를 구현하는 환경에 대한 깨달음과 한국불교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불교의 주체성(Identity)을 살림으로서 한국불교가 21세기 국가적, 지구적 환경보존 및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제어 ● 코로나 19, 불교환경, 복합유산, 청정성 회복운동, 지속가능성

1. 들어가는 말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후, 2020년 9월 15일 현재 코로나19(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¹⁾로 인한 확진자는 216개국에 걸쳐 29,155,581

1) 세계보건기구에 의한 공식명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rona

명이고, 926,544명이 사망하였으며²⁾,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9월 15일 현재 22,39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36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

이와 같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큰 혼란과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많은 인간활동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경제활동이 축소되고, 이동이 제한되고 있으며,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대체되고, 재택근무와 온라인교육 등이 추진되는 등 생존의 문제로서 급격한 사회변화와 근원적인 대전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은 세계역사가 코로나 이전(Before Corona: BC)과 코로나 이후(After Corona: AC)로 구분될 것이라고 주장하듯이 곳곳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⁴⁾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기후변화로 지구의 물 순환이 바뀌고 생태계교란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문명이 빈번한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는 기후변화로 서식지가 파괴된 모든 생물이 대대적인 이주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⁵⁾

이화여대 석좌교수인 최재천 교수도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19는 인류가 저지른 일로서 대규모로 동물과 접촉하고 끊임없이 숲을 파괴하고 동물을 죽인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고 했으며,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고 우리 삶의 생태적 전환이 일어나야 함을 강조하고

Virus Disease in 2019: COVID-19'이며, 외국에서는 줄여서 'COVID-19'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질병관리청의 공식명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며, 통상 줄여서 '코로나 19'로 사용하므로 본고에서도 '코로나19'로 표기한다.

2) [https://covid19.who.int/\(2020.09.20\)](https://covid19.who.int/(2020.09.20)).

3) [http://ncov.mohw.go.kr/\(2020.09.20\)](http://ncov.mohw.go.kr/(2020.09.20)).

4) [https://www.nytimes.com/by/thomas-l-friedman\(2020.09.10\)](https://www.nytimes.com/by/thomas-l-friedman(2020.09.10))

5) 제러미 리프킨외 7인(2020), 19-45.

있다.⁶⁾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G20의 단합된 행동으로 코로나로부터의 회복을 인간과 지구를 위한 진정한 전환점으로 만들라고 촉구하면서 코로나 19 이후 전 세계가 두 가지 긴급한 위기로서 코로나 19와 기후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⁷⁾

이현훈교수는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세계의 정치·사회·문화·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새로운 세계가 도래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⁸⁾

또한 지난 9월 4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그린뉴딜에서 에너지전환으로: 단절 없는 도약을 위하여’를 주제로 개원 34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성경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사태이후 세계는 코로나 19의 확산과 경제충격과 고용충격, 인구증가, 그리고, 기상이변, 환경오염, 생물종의 위협의 4가지 위기가 합쳐진 복합위기의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보다 근원적인 문제들로서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환경오염과 생물종멸종을 들고 있으며, 그와 같은 지구위기와 문명위기의 대안으로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합친 한국판 뉴딜을 주장하면서 에너지와 산업, 그리고 생활전환 등을 포함하는 문명대전환을 통해 인간과 생명권전체의 공생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조하였다.⁹⁾

토론자로서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은 현재의 코로나 상황보다 경제위기, 경제위기보다 기후·환경위기가 더 심각하고, 특히 현재의 코로나 상황으로 이에 대한 더욱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6) <한겨레>(2020.7.25), 9.

7) <https://news.un.org/en/story/2020/08/1070652>(2020.09.10).

8) 이현훈(2020), 166-176.

9) 에너지경제연구원 개원 34주년 기념 세미나(2020.9.4).

21세기 지구전체의 위기에 대해 가만히 멈춰서 인류의 역사를 고찰해보면, 인간중심 그리고 문명에서 지구전체를 생각하며 자연과의 공생을 도모해야 하는 전환점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코로나 사태는 위기가자기회로서 그런 전환점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지구를 위해,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세계적 대유행(pandemic) 현상으로 인한 위기는 우리에게 문명의 본질과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고민해서 새로운 전환과 시도를 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불교도 한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특성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선도하기 위한 큰 전환과 노력이 있어야 하며, 21세기 한국불교도 본연의 자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21세기 불교환경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불교환경분야에 대해서는 한국불교의 특수성과 우수함이 잘 드러나고 있으므로 한국불교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특성화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국내외 환경현황과 변화로서 지구환경현황과 그동안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고, 더불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국불교의 현황과 특성을 고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불교환경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한국불교환경의 장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연환경분야와 복합유산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선도해 감으로써 국가적, 지구적 보존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구환경의 현황과 특성

1) 지구환경 현황과 과제

21세기 지구환경의 현황은 암울한 현실이다. 지난 세기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지구적 규모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문가 및 환경단체에서 많이 제기된 지구환경문제로는 지구온난화문제로 인한 기후변화,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문제, 사막화, 생물종의 멸종, 자원고갈과 유해폐기물 문제 등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많이 주목되고 있는 사안은 기후변화와 생물종의 멸종, 그리고 지구전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후변화(Climate Change)

폭염과 홍수, 가뭄과 산불 등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재난을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확인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로 인해 야기되며, 인간활동, 특히 화석연료의 연소 등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대로 지표면의 온도가 기후의 자연스런 변동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로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질소(N₂O), 대류권 오존(O₃), 염화불화탄소(CFC) 등 다섯 가지가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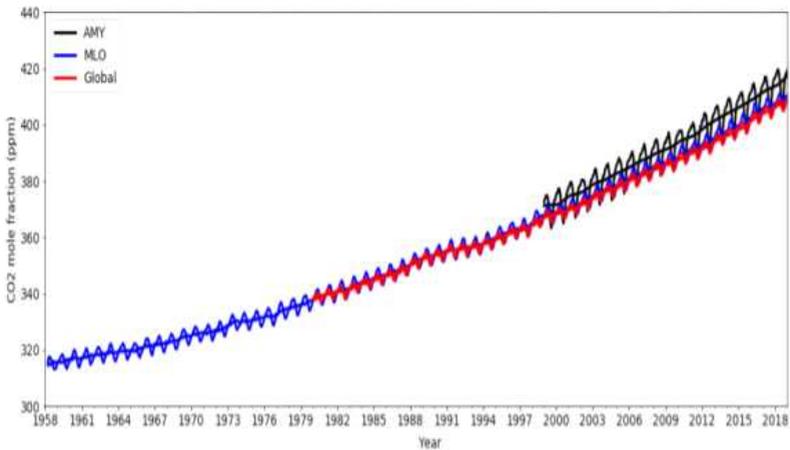
최근 세계기상기구(WMO)의 발표에 따르면¹⁰⁾, 2015~2019년의 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이전 시기(1850~1900년)보다 1.1℃ 상승하였고 최근 5년이 역사상 가장 더운 5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평균농도가 2019년 말에 410ppm에 도달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보여 역사상 가장 가파른 상승세

10) WMO, (2019).

가 예상되고 있다.

이렇듯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는 이제 기후시스템과 인간사회를 위협하는 “기후위기”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이러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시작점으로서 체계적 대응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¹¹⁾

최근 기상청에서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기후변화 과학적 근거-자료에 의하면¹²⁾, 산업화 이전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278ppm 정도로 추정되며,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연소 등으로 인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급증하여 2017년에는 전 지구 평균 농도가 405.5 ppm까지 상승함으로써 약 46%나 증가하였다.¹³⁾



<그림 1> 안면도(검은색, AMY), 마우나로아(파란색, MLO), 전 지구(빨간색, Global)의 CO₂ 농도 변화

안면도에서 측정된 한반도 배경대기의 CO₂ 농도는 2018년에 415.2

11) 국립기상과학원(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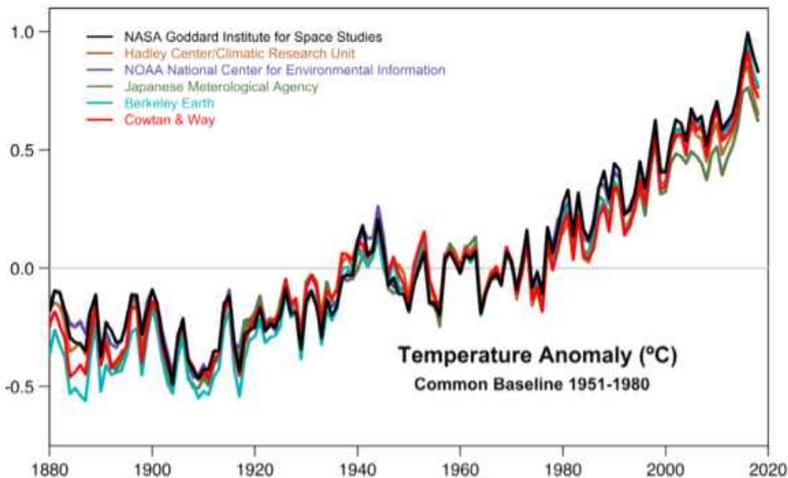
12) 기상청(2020), 27-34.

13) WMO(2018).

ppm을 기록하였으며 안면도에서 처음 CO₂ 농도를 관측한 1999년 연 평균 농도 371.2 ppm과 비교하여 19년간 44 ppm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안면도에서 관측된 CO₂ 농도는 연평균 2.4 ppm/년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간 전 지구 평균 CO₂ 증가율 2.2 ppm/년과 비슷하다. <그림 1>은 안면도와 미국 하와이 마우나로아, 그리고 NOAA에서 관측한 전 지구 평균 CO₂ 농도를 나타내며 모든 관측 지점에서 CO₂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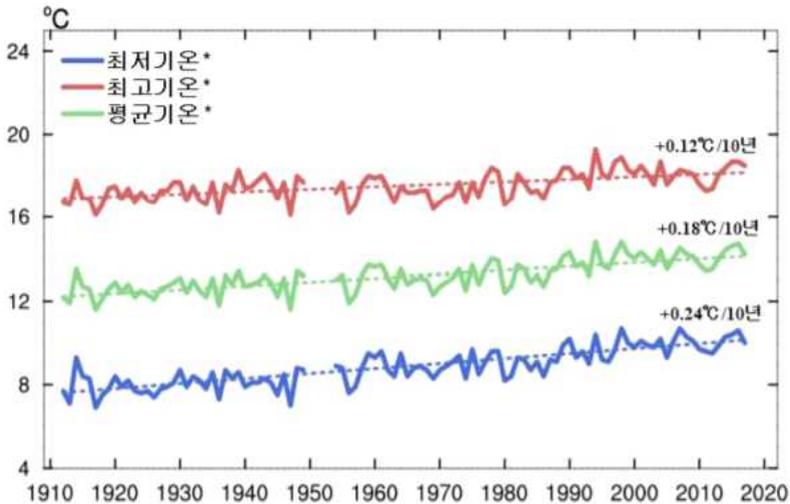
이러한 온실가스증가로 인한 기온변화에 대해서는 IPCC 5차 평가 보고서에 제시된 것처럼 1880~2012년 동안 약 0.85(0.65~1.06)°C의 전 지구 평균 지표 기온 상승이 나타났다.

특히, 한국 기후변화보고서(2014)에 의하면 지난 2018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 지구 평균 지표 기온의 온난화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2> 참조).



<그림 2> 미국, 일본 및 영국 6개 기관에서 제공된 1880~2018년까지 전지구 평균 지표기온(지표기온+해수면온도) 편차(1951~1980년 평균에 대한 편차)의 연변동 시계열임(Lenssen et al., 2019).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기온변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평균 지표 기온은 관측이 시작된 1912년부터 2017년까지(106년) 관측 자료가 존재하는 6개 지점(서울, 인천, 강릉, 대구, 부산, 목포) 평균을 기준으로 0.18°C /10년의 기온변화율로 뚜렷하게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GHCN-M 자료에 기반한 전지구 평균 지표 기온(육지)의 변화율은 0.14°C/10년을 기록하였고, 1912~2014년을 기준으로 전지구와 우리나라 기온 증가율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각각 약 1.91과 2.6배 더 높은 기온 증가 추세를 보여, 전 지구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가 더 높은 기온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온난화 추세는 최고기온(0.12°C/10년)에 비해 최저기온(0.24°C/10년)에서 그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그림 3>).¹⁴⁾



<그림 3> 1912~2017년 기간동안 우리나라 6개 기상관측소 지점의 연평균 고, 평균, 최저기온 시계열(국립기상과학원, 2018).

14) 기상청(2020), 34-35 재인용.

이와 같이 기후변화는 지구 전체의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으며,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이제 ‘기후위기’ 또는 ‘기후재난’이라고 일컬어지며, 인류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그 원인인 기후변화라는 시대의 과제를 단순히 개인의 노력으로만 막을 수 없기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역시 평균 지구 온도 상승 1.5도 이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책임감을 느끼고 시급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 기존의 화석연료에 의존한 산업, 경제, 사회 구조를 재생에너지로 기반으로 한 시스템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한 구조로 바꾸고, 그린뉴딜 정책 이행 등 시급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실행하여야 함을 많은 전문가와 지구환경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다.¹⁵⁾

② 생물다양성(Biodiversity)

지구상에는 코끼리와 같은 거대한 생물로부터 수중의 플랑크톤, 토양 중의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은 생물이 존재한다. 이들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상호 서로 연관되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약 30억에서 40억년 전에 지구상에 생명이 탄생한 이래, 진화의 과정에서 많은 종이 생겨났고, 그 한편에서는 기상이나 지형 등 환경의 변화나 종간의 경쟁에 의해 많은 종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 오늘날의 생태계는 지구상의 역사와 함께 걸어 온 변화의 과정이다. 이와 같은 종의 멸종은 자연스런 자연의 메카니즘이다. 그러나, 오늘날 생물종감소

15) Li Zhao외 2인(2020).

* 기후변화 적응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적절한 사전 대응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PCC(Intergovernmental Panels on Climate Change)는 전 세계 기후변화 관련 최신 연구결과를 집대성하여 5~6년 간격으로 발간하여, 기후변화 관측과 예측 및 감시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 지구환경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지구역사가 시작된 이래, 종의 멸종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종의 감소는 자연적인 과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 활동의 결과이기 때문이다.¹⁶⁾

<표 1> 세계 및 한국의 생물종 현황

구분	동물계	식물계	유색조 식물계	균계	원생 동물계	세균계	고세균계	계
전세계	1,205,336	364,099	23,428	135,110	2,686	9,982	377	1,741,018
국내	29,678	7,833	2,951	5,226	2,337	2,785	17	50,827

<표 1>에서 보듯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밝혀진 지구상의 생물 종의 수는 1,741,018종이며, 우리나라는 50,827종으로 보고되고 있다.¹⁷⁾

추계에 따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의 수는 500만~1,000만종으로 추계되고 있다. 특히 열대우림지역은 육상의 7% 정도를 차지하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종까지 포함하면 이곳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의 40% 이상이 존재하고 있는 종의 보고이다. 그러나, 세계자원연구소(WPI)에 따르면, 최근 이 열대우림을 포함하는 열대림이 급속히 파괴되면서, 1990~2020년 사이에 주로 열대림의 감소에 의해 전 세계에 생물종의 5~15%가 멸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야생동물의 멸종원인은 국제자연보호연합(IUCN)의 조사에 따르면, 서식환경의 파괴나 악화, 남획, 침입종의 영향, 먹이부족, 농작물이나 가축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한 살해, 우발적인 포획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서식환경의 파괴·악화로 인한 열대

16) 김동민의 9명(1997), 124-127.

17) <2019 환경통계연감>32호(2020.6), 29.

우림, 산호초, 습지 등에서의 환경파괴가 심각하다.

우리는 건강한 지구 생물상을 유지하기 위해 현존하는 생물다양성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아직 모르고 있다.¹⁸⁾

인간이 계속적인 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호모사피엔스는 여섯 번째 멸종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그 희생자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생명의 기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와 나머지 자연세계와의 깊은 관계를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윤리적인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 우리의 의무는 그들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호모 사피엔스는 현재 지구상에 있는 다른 모든 종과 똑같은 발판 위에 서있기 때문이다. 결코 지구상에서 하나뿐인 우월한 지적 생물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차원이 아닌 것이다. 전체론적 의미로 지구의 생물상을 이해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그 전체 생물상의 일부로 보게 될 것이다.¹⁹⁾

대량멸종은 생물 흐름을 구체화하는 주요한 창조력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지구상의 5대 멸종의 원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론들이 있으나 그 어느 것도 증명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섯 번째 멸종의 범인만큼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다.²⁰⁾

③ 환경오염과 지속가능성 확보

유엔 환경 계획 UNEP는 지난 5월 24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새로운 “지구환경전망(Global Environmental Outlook: GEO)”을 발표했다.²¹⁾

18) 리처드 리키. 로저 르윈, 황현숙 역(1996), 308-320.

19) 리처드 리키. 로저 르윈, 황현숙 역(1996), 318.

20) 리처드 리키. 로저 르윈, 황현숙 역(1996), 320.

21) UNEP(2019), Global Environmental Outlook: GEO, 이 자료에 의하면 지구환경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악화되고 있

최근 과학전문지 Nature에서는 기후임계점(Climatic tipping points)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인들, 경제학자들과 몇몇의 자연과학자들까지도 지구 시스템의 임계점(예를 들면, 아마존 열대 우림이나, 남극 서부의 대륙 빙하)가 확률이 낮고 거의 이해되지 못하고 여기고 있으나, 과학적 증거들이 증가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어날 수 있음과 이 일들이 큰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생물 물리 시스템과 얽혀서, 잠재적으로 지구에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²²⁾

그동안 에너지와 자원을 끊임없이 소모하고 환경파괴를 야기하였으므로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전환되어가야 한다. 오늘날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은 UN산하의 환경개발위원회에서 내린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정의를 보면, 원래 지구생태계를 지탱(sustain)하라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으나, 생태계를 지탱한다는 말은 없고,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되,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개발(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이라고 인간중심으로 기술되어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환경과 인간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으로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²³⁾

첫째는 석유, 석탄, 원자력과 같은 에너지를 재생가능한 태양, 풍력, 지역, 수소 등의 에너지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재생에너지를

으며, 기후변화뿐만이 아니라, 비옥한 토지의 손실, 깨끗한 물 부족 현상의 증가, 생물 다양성의 손실 등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의 국가들은 이러한 긴급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증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구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유엔에서 채택된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할 수 없음을 알리고 있다.

22) Timothy M. Lenton, et al(2019), 575, 592-595.

23) 김정옥(2006), 22-31.

개발함과 함께 에너지 요구가 작도록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감소대책 등 새로운 에너지 체계에 맞는 지역구조를 바꾸고, 시민의 생활양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둘째는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원들도 한계가 있으므로 자원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자원을 아껴 써야 하고, 근본적으로 자원을 순환시켜 자원순환사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는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용량(Carrying Capacity)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무한정 확장하는 경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행위와 자연파괴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용량 이상의 환경 훼손 행위를 절대로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결국 이 세가지 원칙은 앞으로의 인류는 오래된 미래(Ancient Future)에서 제시하였듯이 수천 년 동안 자연에 적응하며, 조화롭게 살았던 공생의 지혜를 배워가야 한다.²⁴⁾

2) 지구환경에 대한 국제적 대응

인간에 의한 지구환경의 파괴현상은 이제 지구의 어느 한 지역이나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되는 문제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하여 전 세계적으로 지구환경에 대한 일방적인 이용 및 파괴에서 환경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보전에 대한 노력과 관심을 경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60년대를 전후하여 환경문제를 우려하는 여러 지식인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70년대 초반 관련 지식인들이 모여 결성된 로마클럽(club of Rome)의 제1차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가 발표되었다. 그 이후 인류의 위기

24)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김종철·김태언 역(1996).

에 대한 의식을 바탕으로 1972년 6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표어아래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가 개최되어 인간환경선언(Decla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을 채택하였다.

그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²⁵⁾ 이 보고서에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전략이 수립되었다.²⁶⁾

또한 세계적 시사주간지인 타임(Time)지가 1989년 신년호에 1988년을 대표하는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 대신 ‘올해의 행성(Planet of the Year)’이라는 타이틀로 ‘위기에 처한 지구(Endangered Earth)’를 선정하여 생물종의 멸종,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와 기상이변현상, 오존층(ozone layer)의 파괴문제, 산성비(acid rain), 무분별한 열대 우림의 파괴, 방사능 오염 등의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있다. 진화한 인간은 이제 좋은 방향이든 지구의 미래와 현재를 책임지는 지점에 도달했으므로 위기에 처한 지구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²⁷⁾

그리고, 유엔 인간환경회의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라 부르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향후 지구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리우선언과 리우선언의 이행을 위한 21세기 환경보전을

25) WCED(1987).

26) 환경부(2020), 703-704.

27) <Time Magazine>(1989.1.2.), 1.

위한 구체적 실천강령인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하였다.

그 이후에도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여러 국제환경협약의 채택과 무역환경 연계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채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협약 속에 무역에 관한 규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²⁸⁾

2015년 유엔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를 설정하여 2030년을 위해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 17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SDG는 지구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이란 개념을 통해 경제개발과 환경보존, 그리고, 평화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17개 목표 중 8개 과제가 직간접적으로 지구환경과 연계되는 실행과제이다.²⁹⁾

28) 환경부(2020), 293-294.

29) <https://sdgs.un.org/goals>(2020.09.10).



<그림 4>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지난 7월 기후위기를 커버스토리로 다룬 미국의 시사주간 타임지는 ‘단 한 번의 마지막 기회(ONE LAST CHANCE)’라는 제목을 붙였다. 2020년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해로서 지구인의 자각과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³⁰⁾

오늘날 기업활동에서도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공유 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과 사회적 책임활동(Corporated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연계하여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0) Time, One Last Chance(2020.0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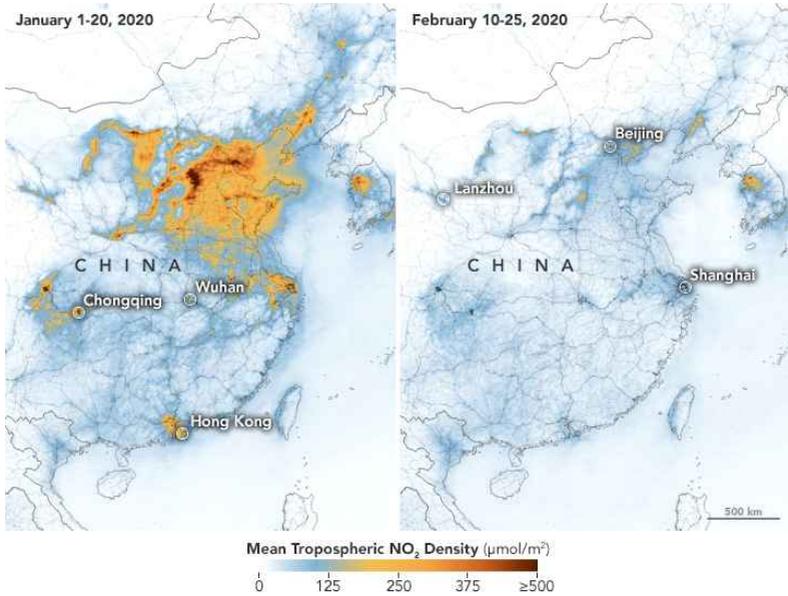
3. 코로나 19이후 지구환경현황과 대응

20세기 지구환경은 인류의 개발 위주의 성장과 대량생산과 소비 위주의 경쟁사회에서 무분별한 자원의 남용과 지구환경의 파괴를 초래해 왔다. 코로나 19 이후 세계는 큰 변화와 혼돈 속에서 지구환경에 대한 환경현황과 대응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역설적인 일이지만, 코로나 발생 이후 봉쇄와 규제로 인해 지구 경제는 움츠러들고 화석 연료 사용량도 줄어들었지만, 곳곳에서 지구환경은 회복되고 청정해지는 현상들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코로나 이후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와 해양대기관리청(NOAA) 등 전문기관의 관측자료와 유엔(UN)과 글로벌 석유업체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British Petroleum: BP) 등의 자료들을 통해 코로나 이후 지구환경의 변화와 대응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코로나이후 지구환경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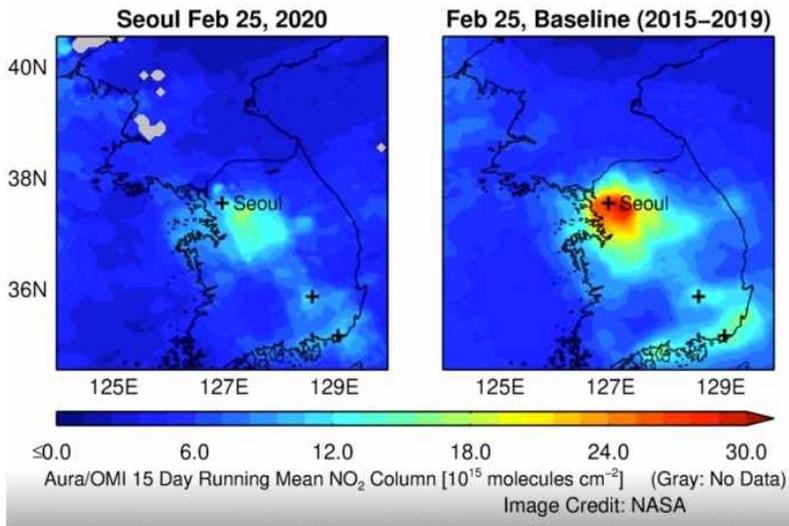
미국의 국가항공우주국인 나사(NASA)의 인공위성자료 등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 코로나의 역설(Corona Paradox)이라 부르는 지구환경의 회복현상들이 확인되고 있다. 코로나 19감염병은 인간에게 치명적이지만,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한 인간의 행동패턴들이 지구환경에 미세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림 5> 중국상공의 이산화질소변화(자료: Tropospheric Monitoring Instrument (TROPOMI) on ESA's Sentinel-5 satellite)

코로나 19로 인해 도시가 봉쇄되고 인간 활동들이 줄어들자 대기오염물질들이 감소함으로써 대기질이 회복되고 도시환경이 청정해지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코로나 이후 인공위성에서 찍은 대기질 이산화질소(NO_2)의 농도변화이다. 이산화질소는 자동차나 공장에서 화석연료연소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데 코로나로 인해 공장과 교통, 사업 등 인간활동이 제한된 이후 <그림 5>에서 보듯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므로 청정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2020년 1월까지만 해도 중국 북경의 대기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이 매우 나쁜 상황이었으나, 인간활동이 제한된 2월 이후에는 중국 전체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낮아지고, 두 세군데의 일부 지역도 우리나라 서울보다 이산화질소 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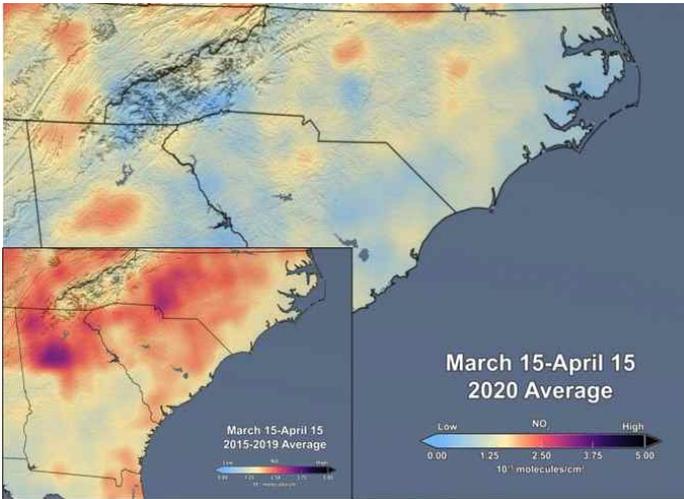
NASA 아우라 위성의 오존관측장비(OMI)가 측정한 올해 2월 25일 우리나라 서울 지역의 이산화질소농도를 지도에 표시했는데, 당시는 대구 집단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며 시민들이 이동량을 대폭 줄였던 시기이다. <그림 6>에서 보듯이 올해(왼쪽) 이산화질소의 농도를 최근 5년간 이산화질소농도(오른쪽)과 비교하면 이에 따른 이산화질소 배출량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인간활동이 제한됨으로써 대기가 회복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³¹⁾



<그림 6> 한국상공의 이산화질소 변화(자료: NASA)

미국 동부의 경우에도 올해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산화탄소 농도 평균과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같은 기간 이산화탄소 농도 평균을 비교했는데, <그림 7>에서 보듯이 과거와 비교해서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31) <https://www.nasa.gov/> (2020.09.10).



<그림 7> 미국 동부상공의 이산화탄소 농도 비교(자료: NASA)

코로나로 폐쇄된 이후 도로교통, 기차, 시추, 운동경기와 같은 인간활동 등이 민감한 감지기에서 배경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게 된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브뤼셀의 왕립벨기에 관측소에서 17개국 268개 지진관측소 측정값을 평가한 결과 지진소음이 전 세계적으로 25~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³²⁾

코로나 19로 인해 대기와 수질뿐만이 아니라, 생태계와 진동 등이 회복되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봉쇄로 인해 일회용품류와 포장재, 마스크 등 의료용품 폐기물, 그리고 생활폐기물 사용량이 증가되었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같이 지난해 12월 31일 처음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이후 인류의 삶뿐만이 아니라 지구 환경 또한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 과학자들은 일시적으로 급격히 줄어든 대기오염뿐 아니라 인류

32) <http://www.thescienceplus.com/news/newsview.php> / Science, 2020; doi: 10.1126/ science.abd2438 (2020.09.10).

활동, 농업, 수질 등까지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영향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의문이 있으며, 코로나 상황이 진정된 이후 또 다른 개발로 인해 지구환경이 훼손이 가중될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로 지구환경의 복원이 확인된 것을 기회로 지구환경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대책을 수립해서 유지해 갈지 그 또한 인류의 결정으로 남겨져 있다.

2) 브리티시 페트롤리움(British Petroleum: BP) 에너지전망 보고서

브리티시 페트롤리움(British Petroleum: BP)는 2020 에너지전망 보고서에서 석유 수요의 성장 시대는 끝났으며 석유 소비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발생 이전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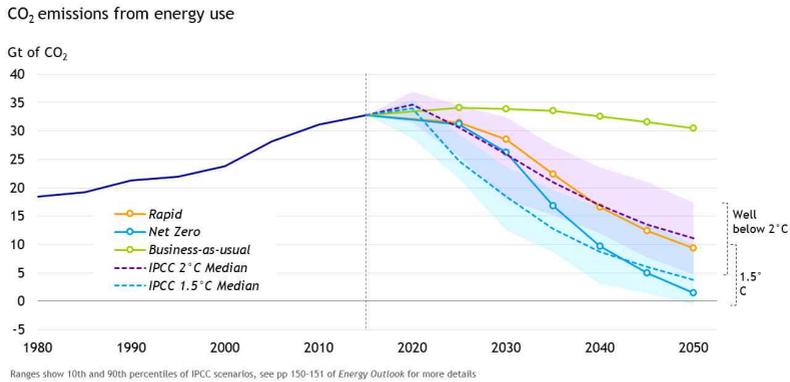
BP의 보고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각 시나리오는 향후 30년동안 발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결과를 다루고 있다.

① ‘급격한 감소(Rapid)’ 시나리오는 각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 조치들로 인해 탄소 배출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고 전제한 전망이고, ② ‘배출 순제로(Net Zero)’ 시나리오는 ‘급격한 감소’ 시나리오에 사회 행동의 큰 변화까지 더해져 수요 감소를 더 심화시키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고, ③ ‘평상시(Business-as-usual)’ 시나리오는 정부 정책, 기술, 사회적 선호도가 최근의 페이스로 계속 전개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33) Spencer Dale(2020.9), Energy Outlook 2020 edition, BP / <https://www.bp.com/en/global/corporate/energy-economics/energy-outlook/> (2020.0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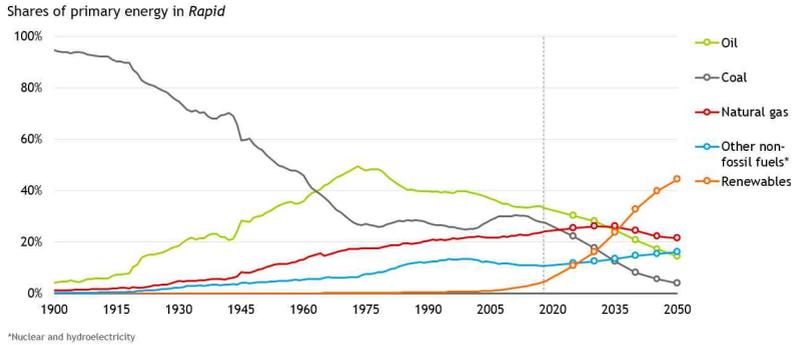
보고서는 처음 두 시나리오에서 석유 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BP의 스펜서 데일리코노미스트는 “두 시나리오에서 석유 수요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석유 수요의 정점은 2019년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언급한 코로나 이후 주요 에너지 전망(Energy Outlook)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격한 감소’ 시나리오에서 탄소배출량은 2050년까지 약 70% 감소하는 반면, ‘순제로’ 시나리오에서는 95%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상시 상황’ 시나리오에서도 2020년대 중반에 정점을 찍은 후 다소간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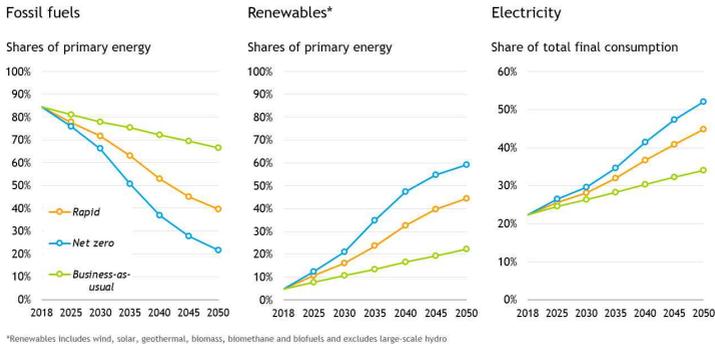
<그림 8>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가지 시나리오(급속감소, 순제로, 정상시)

둘째, 급격한 감소시 글로벌 에너지시스템의 구조변화를 살펴보면, 화석연료인 석탄과 석유는 급격하게 감소하며, 재생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며, 비화석 연료 에너지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급감소시 글로벌 에너지시스템의 구조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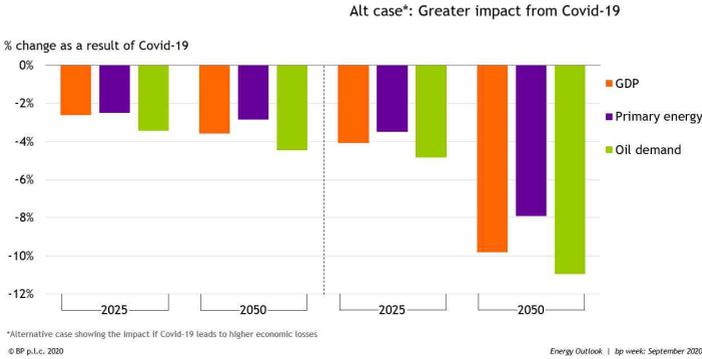
셋째, 3가지 시나리오에 의한 글로벌 에너지 요구량은 화석연료 에너지는 각 시나리오 따라 완만히 감소하고, 재생에너지와 전기에너지는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10> 3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요구량의 구조변화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감소시 영향변화를 확인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총생산(GDP)과 1차 에너지사용량 및 석유 요구량 등이 모두 2~5% 정도 감소하는데,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손실이 심화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mpact of Covid-19 in Rapid



<그림 11> 급속감소시 코로나 19의 영향

3) UN 지속가능목표 점검보고서

2015년부터 유엔에서는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17개의 과제(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를 목표로 설정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에 코로나이후 관련 과제들을 점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세계 많은 지역에서 경제와 삶을 정지시키는 비극으로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봉쇄조치는 수억 명의 사람들과 그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성장(2020년 5.2% 감소, 하반기 8% 감소)을 둔화시키고 실업률(2천 5백만 명 증가)을 증가시키며 빈곤과 배고픔(1억 명의 기아)을 증가시켰다. 이렇게 코로나 19는 많은 사람 및 번영과 관련된 SDG에 피해를 주고 있지만, 지구 관련 SDG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2020년의 연간 CO₂배출량은 작년보다 4~7퍼센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와 물은 깨끗해졌으며 많은 곳에서 자연의 회복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코로나19의 상이한 결과는 발전과 번영을 달성하는 현재의 방법이 지구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사

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조류독감과 코로나 19의 전염병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 성질은 지구를 보호하고 지구를 다른 동식물종들과 동등하게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코로나19의 영향은 2030년까지 SDG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킨다. 그리고 그 답은 인간사회 자체가 코로나19 위기와 그 여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크게 달려있으며, SDG에 대한 시나리오로서 ① 코로나19 이전의 현황과 ② 코로나19 이후의 비관적, 그리고 ③ 낙관적 시나리오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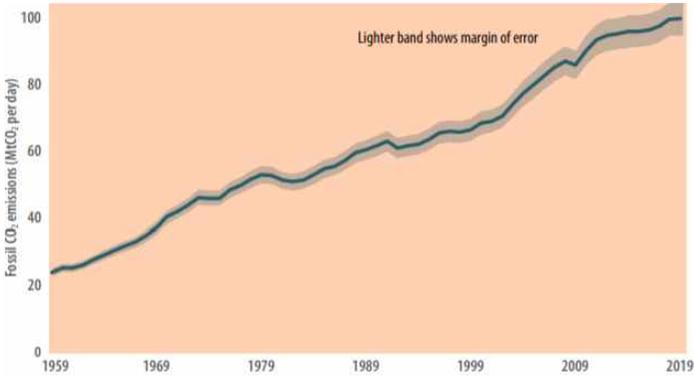
① 코로나 19 이전의 시나리오(상황)

지구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파리협약의 목표를 가능한 빨리 달성하려면 전 지구배출량이 최고조에 달하고, 2010년 수준에서 2030년까지 45%의 급속한 감소와 함께 2050년까지 순 제로 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속 가파르게 감소해야 한다. 불행히도, 세계는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12>에서 보듯이 코로나 이전부터 세계 연간 CO₂ 배출량은 파리협약에 의해 규정된 대로 감소하는 대신 계속 증가하고 있다.

파리협정에 요구된 1.5°C - 또는 2°C - 의 최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온실가스배출량이 연간 7.6퍼센트 감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 작용에 관한 한, 코로나19 이전의 추세는 기후변화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추세와 정반대였다. 실제로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지구온도는 세기말까지 1.5°C 목표치의 두 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 추세가 수반할 수 있는 재앙적인 영향에 대한 일부 징후는 최근 몇 년간 나타났던 여러 곳에서

34) UN(2020), 35-44.

발생하는 거대한 산불, 허리케인, 가뭄, 홍수, 그리고 다른 기후재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 세계연간 CO² 배출량(1959-2019)

② 코로나 19 비관적 시나리오

위의 코로나이전의 시나리오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이 탄소배출의 현저한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4월 초에 전세계의 일일 CO₂ 배출량은 2019년의 평균수준에 비해 17% 감소했고, 2020년의 연간 CO₂ 배출량은 작년보다 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감소에는 두 가지 주요 원천이 있다. 첫째, 많은 산업 및 상업 기업이 문을 닫았고, 상업 및 산업의 필요했던 전기이용은 최근 광범위한 재택근무 및 재택명령(stay-at-home orders)에 필요한 주거 전기이용의 증가를 훨씬 능가하여 결과적으로 총 전기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둘째, 여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많은 국가들에 의한 여행제한으로 2020년 4월까지 선박의 약 90%가 출항 금지되어 운송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어 해상 운송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2020년에 20.6%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파리의 기온 상승목표(1.5℃)를 달성하고자 할 경우 온실가스배출량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7.6%씩 감소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감소가 지속적인 추세로 이어질 것인가, 또는 전 세계의 전염병이 통제되는 즉시 코로나 19 이전의 추세로 되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전의 경험들이 희망적이지가 않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2009년 전세계 이산화탄소배출량이 4억 톤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0년, 17억 톤으로 반등해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유사한 대응은 비관적 시나리오로 이어질 것이며, 이 시나리오에서 세계는 파리협약의 목표에서 벗어난 코로나19 이전의 궤도로 빠르게 되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달성된 배출량 감소를 지속하기 위해 세계사회가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배출량이 이전 수준과 추세로 되돌아간다면 이

비관적 시나리오는 지속될 수 있다.

③ 코로나 19 낙관적 시나리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의 궤도로 되돌아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위기 동안 관측된 배출량 감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 세계를 파리협약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임무는 코로나 여파로부터 복구를 위해 배정된 이들 자원의 상당 부분을 기후활동에 투자하는 것이다. 주요 목표는 경제성장과 탄소배출량 증가를 분리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 안에서 코로나 이전의 궤도를 완전히 반대로 바꿔 파리협약으로 전환을 하는 코로나 19 낙관적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낙관적 시나리오는 국제에너지기구가 개발한 지속가능발전 시나리오와 일치하며, 이는 파리협정의 기온상승폭을 1.5°C로 제한한다는 목표와도 일치한다. <그림 13>에서 보듯이 낙관적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산업 배출의 예를 나타낸다. <그림 13>은 코로나 이후의 비관적 그리고 낙관적 시나리오 모두를 보여준다. 비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 코로나 위기동안 관찰된 배출량 감소는 일시적인 것으로 증명되며, 세계는 다시 코로나 이전의 추세로 돌아간다. 이와 대조적으로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코로나 위기 동안 관찰되던 경향의 변화가 지속되어진다.



<그림 13> 시나리오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

④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지구보호를 위한 대책

무엇보다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회복과 지구보호에 있어서 우선 순위 중 하나는 대유행 중에 관찰된 온실가스배출량의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이를 보다 지속가능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파리협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코로나 복구에 배정된 예산 중 상당량은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는 데 필요한 투자로 향할 수 있다. 현재 낮은 연료가격은 온실가스배출을 억제하고 탄소절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기후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투자영역은 (i)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 (ii) 스마트그리드 구축, (iii) 고용량 배터리개발, (iv) 탄소포획 및 격리, (v) 새로운 청정연료개발, (vi) 절전장치의 생산 및 사용, (vii) 청정에너지투자에 근거한 전기자동차로의 전환 등이 있다. 이러한 투자정책은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는 저개발국가에 더 필요하다. 기후조치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i) 직접 공적투자, (ii) 민간투자의 보조금 지원, (iii) 보장된 청정에너지 시장제공, (iv) 에너지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간에 필요한 협력보장 (v) 에너지산업과 관련 R&D 조직들

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 (vi) 공공의 동원 등이 포함될 수가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시행된다면, 한 국가가 코로나19로 인한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피하고 낙관적인 상황으로 진행하며 추후에 기후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최근의 전염병들의 인수공통 감염병적 성질은 인간이 자연에게 주었던 압력을 줄였고, 땅, 물,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 위기 동안 자연에 대한 인간의 압력을 완화시키며 관찰된 몇몇 긍정적인 지표들은 지속하여 확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가들이 인간의 개입으로부터 보호받는 17%의 육상 지역 그리고 10%의 해양지역을 보존하자는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간이 자연에게 끊임없는 압력을 주는 한 가지 이유는 전 지구적으로 물질소비와 생산의 양이 지구가 제공할 수 있는 환경용량(capacity)의 두 배 가까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양의 증가와 더불어,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의 사용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같이 폐기물의 구성에도 위협적인 변화가 있으며,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개발도상국 인구는 여전히 물질적 소비수준을 높여야 하지만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로서 (i) 감소, 재사용 및 재활용(RRR) (ii) 순환경제채택 (iii) 디지털 제품으로의 소비 전환, (iv) 근본적으로 경제적 성장과 물질소비의 관계를 독립시키는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불교환경의 현황과 특성

코로나19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지구 전체를 큰 혼란 속에서 빠뜨린 가운데 여러 방면에 걸쳐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포스트 코

로나시대 자성과 전환 실천적 대안과 현세 정토구현을 위한 방법으로 한국불교의 장점을 바탕으로 공유와 공생의 생태문화를 육성해 가야 한다.

오늘날 한국불교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대적 변화와 전환을 위해 중요한 자산들로서 소프트와 하드적 장점으로 수송한 환경친화적 교리와 생활양식, 물리적 공간으로서 양호한 생태환경의 사찰보존지(사찰림)가 있다. 그중에서도 21세기 한국불교가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산은 첫째는 불교의 친환경적 가르침과 전통이고, 둘째는 한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복합유산적 가치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교의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양식

불교의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양식에 대해서는 그동안 동국대의 불교생태학연구와 종단 환경위의 사찰환경 보존활동과 불교환경의 제21 개발, 그리고, 불교환경 교재발간 등이 진행되어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본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불교계 사부대중 전체가 공감하고 공유하는 사회적, 시대적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불교계가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자산을 묻혀두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불교의 친환경적 가르침은 매우 다양하고 많다. 다만 현실적인 적용과 실천의 문제이다.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과 환경변화에 비추어서 현실적인 문제점인 환경문제를 시대적인 괴로움(苦), 즉 환경고(環境苦)로 인식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35),36)}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인식의 전환과 구체적 실천으로서 연기와 자비는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생의 지혜로서 구체적인 처방전이 될 수가 있다고 본다.^{37),38)}

불교의 친환경적 가르침은 오늘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전환과 논리적 근거로서 중요하다. 모든 존재를 상호관계로 통찰하는 연기법(緣起法)은 지구상의 모든 존재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체와 만물의 관계성을 법계(法界)로서 세계 전체가 그물망으로 연결된 인드라마(Indrajala)이라는 것이다. 모든 존재의 연기적 관계상으로 존재하기에 한 존재의 생존과 지구환경은 불가분의 관계

35) 이병인(1998).

36) 이병인 . 이영경(2000), 143-153.

37) 고영섭(2001), 21-67.

38) 박이문(1990).

에 있으므로 서로 존중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³⁹⁾ 이와 같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구체화한 것이 불살생(不殺生)의 생명존중과 평등사상이다. 초기 경전인 슷타니파타 등에 말씀하였듯이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대지도론(大智度論) 4에 나타난 비둘기 대신 자신의 몸을 주는 부처님의 전생담과 윤회관에서 보듯이 모든 생물은 평등하다는 것이다.^{40),41)}

더 나아가 자연과 인간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은 둘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있다는 의정불이(依正不二)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곧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고, 자연을 살리는 것이 곧 자신을 살리게 된다는 것으로서 오늘날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가르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불살생의 생명존중사상과 의정불이의 자연관은 숲에서 최소한의 소욕지족(少欲知足)으로 생활하면서 불교의 독특한 생활양식으로 유지하여 왔다. 부처님 당시부터 출가자는 청빈과 가난의 정신을 살려 결식하고(乞食), 나무 아래 소박하게 머물며(樹下座), 버려진 천으로 만든 가사를 입고(糞掃衣), 동물의 배설물로 만든 약으로 병을 치료하면서(陳棄藥) 청빈하게 사는 사의지(四依止)의 삶을 살아왔다. 이와같은 불교적 생활양식은 오늘날에도 청정한 수행가풍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불교 전래 이후 1,700여년 동안 발우공양과 방생 등 절약과 재활용 정신으로 계승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발생하는 지구 환경 문제들이 결국 인간의 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부작용이므로 그 해결 역시 인간이 담당해야 할 책무라는 점에서 인과의 법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불살

39) 대한불교조계종환경위원회(2017), 62-93.

40) 법정 역(1999), 59.

41) 법정(2002), 43-45.

생(不殺生)의 생명존중사상은 생물종의 멸종과 관련해서 생물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재정립되어야 하고, 삼의일발(三衣一鉢)과 분소의(糞掃衣) 등 무소유적 삶과 채식과 발우공양 등 불교적 생활양식은 기후변화를 포함하는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한 기본 정신과 행동양식으로 되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한국불교의 친환경적 전통

불교의 친환경적 가르침에 의거하여 한국불교는 그동안 다양한 불교환경활동들을 수행하여왔다. 태생적으로 불교는 숲의 종교이고, 청정한 수행가풍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생명존중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산감(山監)소임을 두고 산주정신(山主精神)으로 불교 전래 이후 천수백년 동안 수행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⁴²⁾

우리나라의 경우 그 대표적인 사례가 ①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으로 한국의 환경운동사상 100만 명 이상의 서명과 대법원까지 가는 20여년 간의 법적 소송 끝에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을 철회시켰으며, ② 새만금갯벌을 살려내기 위한 65일간의 삼보일배의 수경(收耕)스님, ③ 천성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5차의 단식정진의 지율(知律)스님, ④ 4대강사업 반대를 위한 소신공양의 문수(文殊)스님(2010.5.31) 등 현대한국의 환경활동의 좌표가 되는 중요한 활동들이 있다.

더욱 불교계의 전통적인 많은 큰스님들은 산주정신(山主精神)을 바탕으로 수행환경을 보존하고, 사찰보존지를 지켜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다. 무엇보다 사찰 땅 한 평을 지키고, 구하기 위해 역대 조사스님들이 몸을 바쳐 노력해왔다. 생전의 일타스님께 직접 들었던

42) 사찰생태연구소(2015), 66-73.

말 중의 하나는 예전부터 스님들은 땀나무를 위해 나뭇가지 하나라도 자를 때에도 반야심경을 치고 베었다고 한다. 통도사의 경봉스님께서는 60, 70년대 통도사의 소나무들을 벌목하려 하자 친히 노구를 이끌고 나오셔서 ‘송하구승(松下懼僧: 소나무 아래 땀 흘린 스님이 잘 어울린다.)’이라 하시며, 막으셨다고 한다. 또한 경봉스님께서는 현 삼성SDI 공장용수가 부족해서 산을 뚫고 도수로 터널을 만들어 건너편 배내골의 물을 끌어 오려하자, “산을 뚫는 것은 내 복장을 뚫는 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몸소 나서서 예산까지 내려온 사업을 철회시켰다고 한다. 봉암사 조실이셨던 서암스님은 “지금 정진을 미룰지라도, 산을 지키고, 지켜야 한다.”는 말씀처럼 한국불교의 큰스님들은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산(山)을 지켜왔다.⁴³⁾

또한 15년전 전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직지사 조실이셨던 녹원스님을 뵈었을 때, 직접들은 이야기가 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 선산 지역을 시찰하였을 때, 가끔 직지사에 들러 쉬어갔다고 한다. 그때마다 스님께 직지사를 포함하고 있는 ‘황악산 지역을 국립공원 지역으로 지정해 줄까’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스님께서 적극 반대하여 그리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한다. 왜 그러셨냐고 여쭙었더니 ‘내 땅 내가 지켜야지 남에게 맡겨서는 제대로 된 관리가 안된다.’고 하셨다. 이 점은 가야산 골프장 건설사업 때 적극 동참하셨던 해인사 대중스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기도 하였다.⁴⁴⁾

이와 같은 전통은 오늘의 시점에서조차 불교가 이 시대에 기여할 사회적 역할과 기능의 하나로서 새롭게 주목할 필요성이 있으며, 오늘날 한국의 사찰지역이 대표적인 자연문화유산으로 남겨진 이유이므로 잘 살려나가야 한다.

43) 이병인외(2014), 38-40.

44) 법보종찰 해인사 교구환경위원회(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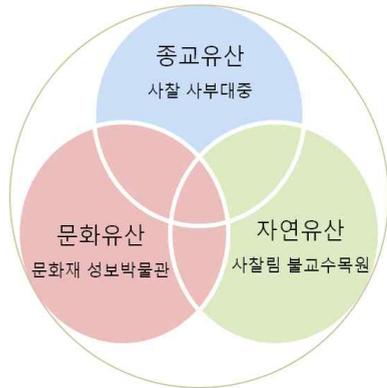
3) 한국불교의 복합유산적 가치

오늘날 한국불교(韓國佛敎)의 사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특성은 산과 사찰이 하나가 되어있는 산사(山寺)로서 다음 <그림 14>에서 보듯이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그리고, 종교유산을 간직한 복합유산(複合遺産)지역이라는 점이다.

이와같이 소중한 우리나라 사찰들이 가지고 있는 유산적 가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종교적 성지로서의 사찰

무엇보다 오늘날의 사찰은 기본적으로 종교적 성지(宗敎的 聖地)이다. 불교가 전래된 이후 스님들의 수행처이자 생활공간으로서 수행과 기도, 법회와 포교가 이루어지는 종교적 성지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많은 사찰지역이 관광지가 되어 가고 있다. 수행공간과 탐방공간이 구분되지 않고, 대부분이 개방되어 무분별한 탐방객들에 의해 수행환경의 질(質)이 저하되고 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종교적 성지(宗敎的 聖地)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그림 14> 한국불교의 유산자원

위한 노력이 사찰과 사부대중을 중심으로 일어나야 하며, 성지(聖地)로서의 품격(品格)을 유지하기 위하여 탐방객에 대한 적절한 계몽과

홍보가 있어야 한다.

② 양호한 생태환경의 사찰

사찰지역은 건조물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사찰림과 산을 지켜옴으로서 오늘날 우수한 생태환경(生態環境)으로 보존시켜 왔다. 명산대찰(名山大刹)이라고 우리나라의 이름난 산에는 대부분이 이름난 사찰이 있다. 절 입구의 일주문에 “가야산 해인사(伽倻山 海印寺)”라고 써 있듯이 절과 산을 따로 떼어 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사찰은 창건 이래로 그 산의 정기를 받으면서 산주(山主)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단순히 산(山)의 주인(主人)이라는 세속적인 소유관계가 아니라 모든 사찰이 산중에 입지한 이후 지난 천여년간 산을 지키며, 산과 더불어서 살아왔다. 오늘날 자연환경이 양호하게 보존되어있는 지역의 대부분이 사찰인근의 산림이라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사찰은 자연을 보존해 왔고, 그것이 오늘날에는 ‘사찰(寺刹)이 곧 자연(自然)’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사찰주변의 생태환경이 매우 우수하다는 사실이다. 그 구체적 증거는 표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 자연공원법에 의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자연공원내 토지소유현황인데, 공원구역 내에는 국립공원 7.0%,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을 합하면, 약 7.8%에 해당하는 생태환경이 양호한 사찰소유의 토지가 존재하며, 사찰과 관계된 개인 명의의 토지까지 합하면 이 비율은 1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절로 가는 길이 공원탐방로로 이용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⁴⁵⁾

45) 조계종 총무원 내부자료(2017.12).

<표 2> 자연공원 지정 및 소유 현황(2017년 12월)

구분	공원 수 (개)	공원면적 (km ²)	공원면적/ 국토면적	소유권 현황(km ²)			
				국·공유지	사유지	사찰소유지	
국립공원	해상면적 포함	22	6.726 (100.0)	6.7%	5,438 (80.8)	1,008 (15.0)	280 (4.2)
	해상면적 제외	22	3,972 (100.0)	3.9%	2,684 (67.6)	1,008 (25.4)	280 (7.0)
도립공원	29	1,123 (100.0)	1.1%	545 (50.2)	438 (40.3)	103 (9.5)	
군립공원	27	234 (100.0)	0.2%	92 (39.3)	108 (46.2)	34 (14.5)	
계	해상면적 포함	78	8,086 (100.0)	8.0%	6,075 (75.5)	1,554 (19.3)	417 (5.2)
	해상면적 제외	78	5,332 (100.0)	3.9%	3,321 (62.8)	1,554 (29.4)	417 (7.8)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한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2억평 이상의 생태환경이 양호한 사찰림과 숲으로 둘러싸인 사찰이 문화경관은 코로나 블루라 부르는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정신적인 치유 공간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다. 최근에는 불교계의 사전동의 없이 자연공원 등 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소유권은 사찰이 갖고 있으나 관리권이 없어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③ 한국대표 문화유산으로서의 사찰

<표 3> 불교문화재 지정현황 (2017년 12월)

지정 유형 지정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중요 민속 자료	중요 무형	등록 문화재	소계
지정 문화재	334	2,112	501	110	457	297	138	724	4,673
지정문화재 중 불교문화재	180	1,273	50	14	31	9	6	35	1,598
비율(%)	53.9	60.3	10.0	12.7	6.8	3.0	4.3	4.8	34.2
지정 유형 지정별	시도지정문화재							총계	
	시도 유형문 화재	시도 민속자료	시도 기념물	시도 무형	문화재 자료	소계			
지정 문화재	3,167	472	1,692	534	2,615	8,480	13,153		
지정문화재 중 불교문화재	1,834	30	115	27	882	2,888	4,486		
비율(%)	57.9	6.4	6.8	5.1	33.7	34.1	34.1		

오늘날 대부분의 사찰은 자랑스런 문화유산(文化遺産)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존하는 역사적 문화유적의 대부분이 사찰내의 불교 문화재라는 사실은 불교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뒤흔어 자랑하고, 또한 유지 보존하여야 하는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국가지정 문화재 4,673건 중 불교문화재는 1,598건으로 34.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국보의 경우는 53.9%, 보물의 경우는 60.3%를 차지하고 있다. 또 시·도 지정 문화재 8,480건 중 불교문화재는 2,888건으로 34.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에 의해 지정된 한국의 불교세계문화유산은 1995년에 지정된 석굴암·불국사와 해인사 장경판전, 그리고 2018년에 지정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

암사, 대흥사)이 있다.

④ 복합유산으로서의 사찰

오늘날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찰지역이 종교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유산 등을 간직한 삼세(三世)의 복합유산지역(複合遺産地域)으로서 유산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⁶⁾ 이 점은 앞으로도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물려 줄 수 있는 미래의 유산(遺産)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올바른 정신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사찰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양호한 자연환경, 그리고, 사찰의 건립이후 조성된 문화유적이다. 단순한 하나의 보물만이 아니라 어느 것 하나 이 시대의 유산으로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종합유산(綜合遺産)이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遺産)의 대부분이 한국불교유산이므로 이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되어야 하고, 우선적으로 보존·관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코로나시대에는 탈종교화현상과 종교적 형평성 등으로 인해 종교 활동이 제약될 수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포함하는 복합유산들은 말 그대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줘야 할 유산자원으로서 공익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으므로 이를 잘 활용해 가야 한다.

5.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국불교환경의 대응과 변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적, 국가적, 지구적 환경문제는 이제 전

46) 이영경외 3인(2011).

지구인들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불교인들에게도 21세기 중요한 화두로서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대처해야한다.

문화사학자인 토마스 베리(Thomas Berry)는 종교를 교육, 기업, 정부와 함께 세계변화의 주요한 원동력의 하나라고 하였듯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시대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다.

또한 게리 가드너(Gary Gardner)는 종교기관과 지도자들은 지속가능한 세계를 건설하려는 노력에 최소한 다섯 가지의 강력한 자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다섯 가지로는 ①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역량, ② 도덕적 권위, ③ 수많은 신도, ④ 상당한 물적 자원, 그리고, ⑤ 지역사회 형성능력이다.⁴⁷⁾

무엇보다 코로나 19는 21세기 불교인으로서 우리가 사는 지역과 국가, 그리고, 지구전체의 공존과 공생을 위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를 위한 한국불교의 친환경적 대응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불교(사찰)의 환경현황과 친환경적 관리방안

삼세(三世)의 정토(淨土)로서 성지인 한국의 사찰들도 최근에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우선 사찰 내부적으로도 관리가 부실하거나, 주위의 자연과 부조화스럽게 너무 크게 입지하는 등 내부적 개발인 불사에 의한 환경의 훼손과 함께, 특히 외부(지자체 및 개발업체 등)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도 사찰의 양호한 관광적 가치를 활용하고자 하는 외부적 개발들이 앞으로도 계

47) 월드워치연구소(Worldwatch Institute), 오수길 외 2인 역(2003), 209.

속 추진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관심과 대비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한국불교(사찰)의 환경대응과 문제점

구분	주요 문제점
사찰 내부적 측면	1. 사찰의 내부의 환경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2. 사찰내부의 무분별한 개발(내부불사)과 환경훼손 3. 사찰내부의 환경시설 미설치 및 관리부실 문제 4. 불교내부의 환경의식 및 교육, 홍보부족 5. 사찰관계자의 전문성 및 책임부재 6. 탐방객에 대한 제한 조치(홍보, 계몽) 미흡: 종교적 성지로서의 특성 및 청정성유지 미비.
사찰 외부적 측면	1. 외부적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부재 및 무관심. 2. 종교간/지역단체간의 연대와 유대부족 3. 사찰과 직접관련이 있을 경우 환경단체와 전문가의 도움과 협조를 받으나, 사후에는 무관심함. 4. 해당지자체, 업체, 지역주민과의 논리적, 도덕적 우위와 명분상실(세속화 문제) 5. 국제적 연대와 활동미비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부터 해당 사찰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방안은 이제 불교계가 담당하여야 할 시대적 활동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사찰환경과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서 ① 가치적 입장에서의 접근방법과 ② 제도적 측면, 그리고 ③ 기술적 측면의 세 가지 접근방안을 중심으로 불교종단 및 사찰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친환경적 불교(사찰)환경 관리방안

구분	주요 내용
가치적 접근방안	가. 친환경적 환경운리의 정립 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원칙 천명 다. 친환경적 생활과 수행 라. 친환경적 사찰 가꾸기-생태사찰 등- 마. 친환경적 교육 및 홍보
제도적 접근방안	가. 불교/사찰환경의제의 수립 및 실천 나. 환경관련기구의 설립 및 활성화 다. 사찰의 보존을 위한 보호구역의 설정 및 관리 라. 지역/종교/국가/지구사회의 환경활동의 참여와 연대 마. 불교시민사회단체와 지역/국가/지구 환경단체의 지원과 환경전문가그룹의 활용 바. 사찰내부의 자율적 환경관리시스템 정비 사. 국제적 연대와 교류강화
기술적 접근방안	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천 나. 사찰 환경목표기준의 설정 및 준수 다. 사찰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환경질 유지를 위한 환경현황조사 및 평가 마. 환경관련 자료의 발간 바. 친환경적 불교환경운동의 실천 및 보급
종합	가. 한국불교의 주체성 확립: 산주정신회복, 유산관리에 관한 주도권 확립 및 관련 정책 선도 나. 환경에 대한 깨달음(인식과 공유) 다. 불교복합유산의 공익적 가치연구 및 홍보 라. 지역적/국가적/전 지구적 청정성회복운동(clean restoration movement)

2) 종단과 불교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무엇보다 종단과 불교시민사회단체는 한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복합유산적 장점과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최근 한국 사회는 다종교사회이므로 종교적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 이므로 앞으로는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유산자원이라는 관점에서 관리와 보존전략으로 특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종단의 경우 무엇보다 한국의 자연유산(공원)과 문화유산(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국가정책을 선도해 갈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불교계의 훌륭한 복합유산을 떳떳하게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서는 종단의 자연·문화 유산분야에 대한 정책적 연구와 종단 내 환경 전담기구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환경보존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야한다. 더 나아가 국제협력과 교류체계를 통해 국가적 지역적 문제만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환경보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보존활동과 대응

불교전래이후 각국의 문화와 결합한 불교는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변화하여 왔으며, 현재의 시점에서 국제간의 교류와 친목을 통해 불교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지구환경문제는 이제 단순한 개인이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협력과 자연과의 공생을 도모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한국·중국·일본·대만 등의 불교문화교류협의회’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분야로서 불교기관과의 불교환경 국제연대를 조직화하여 실질적인 지구환경 보존활동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불교기관과의 국제적 교류를 통해서 우선 ‘2020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불교환경선언(안)’을 천명하여 불교도로서의 환경보존의지를 재천명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불교환경지침서’ 등을 제작하여 발간함으로써 불교계의 환경보존활동이 생활속의 환경보존활동으로 구체화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국제간의 교류가 단순한 교류행사만이 아닌 실질적인 환경활동으로 체계화할 수 있도록 각국의 대표종단에 환경전담기구와 전문인력을 두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이제는 불교가 부처님의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양식, 그리고 역대조사들의 소중한 전통을 이어서 전지구적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4) 21세기 불교계 사부대중의 청정성회복운동 (clean restoration movement)

오늘날 환경활동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 시대에 되살리는 구체적인 실천활동으로 주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이 시점에서 불교는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양식으로 환경적 대안을 충분히 제시해주고 있으며, 한국의 사찰은 해당 종교의 성지라는 종교적인 역할과 함께 이 시대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환경을 포함하는 복합유산으로서 친환경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종교건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시대적 역할과 사명이 있으며, 그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에는 종교로서의 영향력과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 환경에 관해서도 지구환경선언과 지구환경 의제 21 등을 통하여 이미 이 시대의 기본적 사명으로 천명되어 이 시대의 화두로서 대두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불교는 불교의 특성을 바탕으로 환경보존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가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19는 시대적으로 새로운 변화와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불교의 가르침과 생활양식 복합유산적 가치를 살리는 불자들의 환경활동에 대한 큰 자각과 전환이 일어나서 21세기 새로운 비전과 변화를 제시해주고, 실질적인 환경보존활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앞으로는 사찰보존지에 대한 주체성을 확보하고, 자연유산 및 복합유산분야에 대한 정책적 선도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70년대 사업화과정의 우리나라의 공해문제 해결을 위해 ‘청정국토만들기운동’을 추진하였듯이 이제는 지구적, 국가적, 지역적 환경문제에 대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공생의 지혜를 살리는 불교도들의 실질적인 실천활동으로서 21세기 불교계 사부대중의 ‘청정성회복운동(clean restoration movement)’을 구현하여 이 시대 우리가 사는 국토를 청정한 국토로 만들어가야 한다.

6. 맺는 말

포스트 코로나시대는 지구전체의 환경에 대한 자각과 변화, 그리고,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불교는 21세기 한국의 대표종교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불교적 장점을 살리는 자연환경분야와 복합

유산분야의 국가적, 지구적 정책을 선도하고 국가와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지구적 책임을 강화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1700여년 불교 전래 이후 지켜온 사찰환경의 실질적 보존활동을 유지해가야 하며, 외부적으로는 국가적, 지구적 규모의 환경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19(COVID-19)라는 국가적, 지구적 재난을 맞이하여 코로나 이후 지구환경의 현황과 변화를 살펴봤다. 오늘날 지구환경은 지구온난화, 생물종의 멸종, 사막화와 유해폐기물 문제 등 다양한 지구환경문제(Global Environmental Problem)가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구전체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등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구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 대유행 또한 지구환경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으로 인한 부작용이므로 이제는 인류의 자각과 근원적인 변화를 위한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특성화하는 방안으로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국불교환경의 현황과 특성으로서 불교의 수승한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양식 등 종교유산과 함께 사찰림 등 생태환경이 우수한 자연유산과 훌륭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복합유산적 특성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다. 불교가 21세기 한국의 대표종교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불교적 장점을 살리는 자연환경분야와 복합유산분야의 국가적, 지구적 정책을 선도하고, 국가와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지구적 책임을 강화해가야 한다.

무엇보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한국불교는 불교의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양식, 그리고, 역대 조사들의 친환경적 전통을 오늘에 되살

리는 ‘청정성 회복운동(Clean Restore Movement)’이 시대적으로 일어나야 하고, 더불어 근원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인과관계 및 공생관계를 구현하는 환경에 대한 깨달음과 한국불교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불교의 주체성(Identity)을 살림으로서 한국불교가 지역적, 국가적, 지구적 환경보존 및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고영섭(2001), 『연기와 자비의 생태학』, 서울: 연기사.
- 국립기상과학원(2019),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 김동민외 9명(1997), 『환경학개론』, 서울: 양서각.
- 김정욱(2006), 「환경, 더불어 살기-지구촌 환경문제의 현안과 과제」, 서울: 종교단체 환경정책실천협의회.
- 기상청(2020), 「한국 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20-기후변화 과학적 근거」, ISBN 978-89-954715-7-9.
- 대한불교조계종환경위원회(2017), 『환경과 불교』, 서울: 조계종출판사.
- 제러미 리프킨 외 7인(2020), 『오늘부터의 세계-세계석학 7인에게 코로나 이후 인류의 미래를 묻다』, 서울: 메디치.
- Li Zhao외 2인(2020), 「기후변화의 경고: 폭염과 건강피해」, 서울: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 리처드 리키·로저 르윈, 황현숙 역(1996), 『제6의 멸종(The Sixth Extinction)』, 서울: 세종서적.
- 박이문 (1990), 『자비의 윤리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 법보종찰 해인사 교구환경위원회(2004), 『가야산환경백서』.
- 법정윤김(1999), 『숫타니파타』, 파주: 도서출판 이레.
- 법정(2002), 『인연이야기』, 서울: 동쪽나라.
- 사찰생태연구소(2015.12), 「전통사찰 사찰림 연구 및 조사」.
- 에너지경제연구원 개원 34주년 기념 세미나, (2020.9.4.), 「그린뉴딜에서 에너지전환으로: 단절없는 도약을 위하여」, 기조연설 발표자료.
- 월드워치연구소(Worldwatch Institute), 오수길 외 2인 역(2003), 『지구환경보고서 2003』, 서울: 도요새.
- 이병인(1998), 「한국교수불자연합회 10주년 기념 학술대회-21세기 불교와

환경문제」, 한국교수불자연협회.

이병인·이영경(2000), 『사찰환경연구』, 경주: 신라문화원.

이병인외(2014), 『가지산도립공원의 자연환경: 통도사지구를 중심으로』, 부산: 세종출판사, 38-40.

이현훈(2020), 『코로나이후의 새로운 세계』, 서울: 도서출판 해남.

조계종 총무원 내부자료(2017.12).

<한겨레>(2020.7.25.), 9면, 「코로나 이후, 여성의 공존과 생태적 전환도 다양성에서 출발한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지음·김종철/김태언 옮김(1996), 『오래된 미래-라다크에서 배운다』, 대구: 녹색평론사.

<환경통계연감>32호, (2020.6)

환경부(2020), 『환경백서』, 세종:환경부.

Spencer Dale(2020.9), Energy Outlook 2020 edition, BP.

<Time Magazine>, January 2, 1989 Vol. 133 No.1 1989년 1월 2일.

Time, One Last Chance, (020.07.21.).

Timothy M. Lenton, et al(2019.11.27.), 「Climate tipping points - too risky to bet against」, Nature, No. 575, 592-595.

UN(2020), 「Sustainable Development Outlook」.

WCED(1987), 「Our common future」.

WMO(2019), 「The Global Climate in 2015-2019」.

WMO(2018).

2. 인터넷

<http://ncov.mohw.go.kr/>

<http://www.thescienceplus.com/news/newsview.php/Science, 2020; doi: 10.1126/science.abd2438>)

<https://covid19.who.int/>

<https://news.un.org/en/story/2020/08/1070652>

<https://sdgs.un.org/goals>

<https://www.bp.com/en/global/corporate/energy-economics/energy-outlook/>

<https://www.nasa.gov/>

<https://www.nytimes.com/by/thomas-l-friedman>

■ Abstract

**The status and response of buddhist environment
in the post-Corona period**

Yi Pyong-in

This paper is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response and change of buddhist environment in the post-Corona period after the outbreak of Corona Virus Disease in 2019(COVID-19).

Since the pandemic, many people have died and many parts of the world have experienced a direct impact on life and health with the tragedy of stopping both economy and people's life. Various containment measures have slowed down the economic growth, increased unemployment, poverty and hunger. While this phenomenon is damaging to such a large number of peopl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relates to human prosperity, it showed positive impacts on overall global sustainability. Annual CO₂ emissions in 2020 are expected to be 4-7 percent lower than last year. The air and water became clean and nature's restoration was observed in many places. These different results confirm that the current method of achieving human development and prosperity poses a great threat to the Earth's health, therefore, indicate the need of efforts to ensure global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even after the COVID-19 pandemic.

In that sense, this paper addresses the merits of Korean buddhism in post COVID-19 era. The virtue of Korean buddhist environment lies in the fact

that the environment itself is considered to be a complex heritage, encompassing the religious inherited heritage such as the eco-friendly teaching and lifestyle of buddhism, as well as the role of preserving the excellent and natural cultural heritage such as temple forests.

Now, Korean Buddhism should move onto the era of clean restoration movement that brings back the eco-friendly tradition of buddhism's eco-friendly teaching and lifestyle. Moreover, Korean buddhism should actively contribute to overall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sustainability in the 21st century by comprehending the environment that embodies human-nature's symbiosis and causality, and utilizing the identity of Korean buddhism based on its characteristics.

Keywords ● Corona Virus Disease in 2019(COVID-19), Buddhist Environment, Complex Heritage, Clean Restoration Movement, Sustainability

■ 논문투고일 : 2020. 11. 6 ■ 심사완료일 : 2020. 12. 6 ■ 게재확정일 : 2020. 12. 10